

## 첨단기술산업 범위 재조정

정부는 조세감면, 해외증권 발행 허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첨단기술산업의 범위를 4월중에 조정, 고부가가치 지식집약형 서비스업도 첨단기술산업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3월11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첨단기술산업에 새로운 품목을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가 많아 4월중 이를 관계부처와 협의, 조정하기로 했다. 첨단기술산업은 지난 94년4월에 마지막으로 조정됐었다.

현재 공보처가 케이블TV관련 소프트웨어 제품을 첨단기술산업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도 경영자문업, 엔지니어링, 산업폐기물 처리업, 영상산업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산부는 다른 산업 및 업종에 비교해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르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지식집약형 서비스업을 첨단기술산업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현재 첨단기술산업 범위는 ▲전자,전기 및 정보 ▲정밀기계, 신공정 ▲재료,소재 ▲신물질, 생명공학 ▲광학, 의료기기 ▲항공기, 수송 ▲환경, 에너지, 자원 ▲지식서비스 등 8개 분야의 1백57개 기술 및 제품이다.

첨단기술산업에 포함되는 기술 및 제품은 기술개발자금 지원, 내국세 및 관세감면, 해외증권 발행 허

용, 공장입지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 통산부 삼성항공 헬기 기술도입신고 수리

통상산업부는 삼성항공이 미국 벨헬리콥터사와 민수용 헬기를 공동개발, 생산하기 위해 제출한 기술도입 신고를 2월22일자로 수리했다.

삼성항공과 벨 헬리콥터사가 공동개발할 기종은 최대이륙중량 6000파운드급 쌍발 터빈엔진 헬기로 총 개발비 3억달러중 삼성항공이 6,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1997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통상산업부는 삼성항공의 기술도입 신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그동안 삼성항공의 헬기 생산산업이 단순조립 방식에서 탈피하여 양사가 공동개발함으로써 헬기에 대한 설계기술 등 첨단기술 확보를 통해 우리나라 헬기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생산 헬기의 동체 구조물 전량을 우리나라에서 독점 공급함으로써 헬기산업의 수출산업화가 가능하다고 신고수리 이유를 발표했다.

## 중형항공기 운영위원회 개최

통상산업부는 중형항공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중형항공기 개발사업과 관련 금년 4월까지로 정해진 2차연도 사업기간을 8월까지로 연장하고 과제 책임자를 기체 4사

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위원급으로, 소재/보기 업체는 사장급으로 격상시켰다.

이와관련 중형항공기사업조합은 3월19일 2차 사업연도 수정 사업계획을 총괄주관기관인 항공우주연구소에 제출했다.

## 다목적실용위성 발사체 선정 현지 조사 실시

항공우주연구소는 다목적실용위성 발사체 선정을 위해 1월29일부터 2월11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9개 업체를 방문했다.

미국(5), 러시아(2), 유럽(1), 중국(1) 등에 대한 현지 실사에서는 주로 위성체와의 접속 관계 및 환경조건 등 기술 사항과 발사 보험, 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발사체 조립시설, 로켓엔진 제조공정 및 발사장 시설에 대한 사찰도 포함되었다.

현지 조사는 항공우주연구소의 김학정 박사 및 조광래 박사, 과기처 김동인 사무관이 미국 업체를 방문했고 항공우주연구소의 장영근 박사와 통산부 김무영 서기관이 유럽, 러시아, 중국 업체를 방문했다.

발사체의 최종 선정은 현지조사 결과를 종합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4월 말경 발표될 예정이다.

항공우주연구소는 다목적실용위성 발사체 선정을 위해 3월11일부터 13일까지 항공우주연구소에서

평가 작업을 마무리했다.

## 무궁화위성 3호 99년 발사 국산화 20% 목표

지난해 8월 발사된 무궁화1호 위성의 상용서비스가 본격 개시됨과 함께 차기 위성 발사 계획이 발표되어 위성 제조사업을 꿈꾸어온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1호 위성의 수명 단축으로 1999년 4월 3호위성을 발사하는데 국산화율을 20%로 잡았다. 2호위성의 수명이 다하는 2006년에 발사할 4호 위성에서는 국산화율 50%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데이콤도 제2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다지기 위해 위성통신사업에 진출할 계획으로 있는데 1999년경 위성을 발사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무궁화 3호 위성의 사업비는 980억원이고 4호위성의 사업비는 1,580억원으로 잡혀 있다. 데이콤의 위성사업비 2,500억원을 포함하면 5천억원 이상의 위성시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거기에다 과학기술처에서 구상하고 있는 다목적실용위성 시리즈와 과학위성 등을 포함하면 수년 내 국내 위성시장이 조단 위에 들어선다는 이야기다.

이와같은 위성 발사를 위해서는 궤도 확보 문제가 남아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정지궤도 4개를 확보해두고 있다. 1977년과 1988년에 ITU가 국가별로 궤도를 할당할

때 동경 116.2도와 동경 110.0도에 각각 1개씩 확보했고, 1990년에 무궁화위성사업을 시작하면서 동경 116도와 113도에 각각 1개씩 확보했다. 정보통신부는 그외에도 1995년에 모두 9개의 궤도를 신청했다.

정보통신부가 신청한 궤도는 국가초고속위성통신망 및 지역위성용으로 5개를 신청했고 데이콤의 지역위성용으로 4개를 신청했다. 궤도 신청에서 할당까지는 보통 5년 이상 걸린다.

주변국 중에서 중국은 이미 17개의 궤도를 확보하고 있고 일본은 16개, 싱가폴은 6개를 확보하고 있다.

## 국적항공사 외국 현지 정비 확대

국적항공사가 외국 현지에서 항공기 정비를 용이하게 하도록 현지 항공사의 정비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우리나라의 항공기가 외국에서 운항중 고장을 일으켰을 경우 현지 항공사의 정비시설을 이용한 현지정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Foreign Repair Station Certification 제도를 확립하고 6개국 6개 항공사에 국적항공기 정비허가증을 발급했다.

국적항공사가 외국에서 현지 항공사의 정비지원을 받으려면 항공사간 정비지원 협의 후 건교부에 신청하면 외국항공사의 정비능력을 심사하여 인정서를 교부한다.

지금까지 인정서가 교부된 국가는 태국(타이항공), 홍콩(헤코사), 네덜란드(KLM), 벨기에(사베나), 오스트리아(라우다), 호주(퀵타스) 등이다.

반대로 외국 항공기가 우리나라에서 정비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대한항공이 캐나다항공, 프랑스항공, 영국항공 등 20개 외국항공사를 지원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은 중국항공, 동방항공, ANA 등 8개 외국 항공사를 지원하고 있다.

## 블랙박스 해독 장치 도입

우리나라에서도 항공기 사고시 완벽한 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항공기 사고조사의 핵심인 블랙박스 해독력을 갖추기 위해 금년 12월까지 블랙박스 해독장치를 도입키로 하고 이를 운용할 건교부 항공국 요원 4명, 관련기관 7명등 총 11명의 교육훈련을 끝냈다.

1월24일부터 2월22일까지 영국의 블랙박스 장비 제작회사인 FDC사에서 실시된 동 교육을 통해 블랙박스 해독장비의 전반적인 이해와 분해 및 조립과정 뿐만 아니라 비행자료기록장치(FDR) 해독절차와 음성기록장치(CVR)의 해독방법을 습득했다.

블랙박스 해독장치는 현재 세관통관중에 있으며 서울지방항공청에 배치할 예정이다.